

화장품 국제표준 심포지움 개최

지식경제부는 4월14일 화장품산업의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과 국내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화장품 산업 표준화 동향 국제심포지움>을 COEX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심포지움은 4월 11-14일 <2008 서울 국제 화장품·미용박람회> 기간에 개최되는 것으로 화장품 업계, 학계 등 200여명의 참석이 기대되는 국제적인 행사이다.

화장품 산업은 삶의 질 향상, 소비자의 미적 요구 증대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 및 품질 보증시스템 등의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일반 공산품과는 별도로 화장품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어 화장품의 시험항목, 기준, 방법 등이 국가마다 상이한 실정이다.

법규는 국제무역상의 제한요건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7)에서는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약 150억달러(원화 144조) 정도로 소비자의 웰빙 선호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화장품 산업은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FTA 추진 등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의 선점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포지움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변화에 따른 접근성 및 표준화 현황 등을 국내 화장품산업 현장에 알려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통한 무역기술장벽 극복 등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본 행사에는 ISO/TC 217(화장품)의 의장인 Richard Van Buuren 박사가 <ISO 화장품 표준화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외 전문가 4명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국내 화장품산업의 성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8/04/11>